

일본군 위안부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남북 해외 3자 공동 서명운동 의식화 자료 대시민 의식화 내용

▶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이 당연한 일본의 전쟁책동과 군사패권주의 음모를 연결하여 대중 의식화하지 않는다면 민중의 정서와 요구에 정확히 맞추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한반도 전쟁책동과 관련한 구체적 근거와 자료,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의 정의와 배경등을 실었으며 또한 남북해외가 함께 해결하기로 한 만큼 남과 북의 정부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하여도 서술하였습니다.

진행방도는 서명운동을 통해 시민들을 만납니다.

내용은 일본군 강제 중군 위안부 문제 3자 공동 해결을 위한 범민족 서명운동입니다. 지금시기 우리가 위안부 문제 완전해결의 투쟁을 높이 하는 이유는 위안부의 문제가 당연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음모와 개별적으로 떼어놓고 사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당연한 반일 반전 투쟁 속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의 목소리를 내어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총체적인 일본의 실상을 인식하면서 그 근원의 해결을 모색해 보도록 합시다. 앞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은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일본의 전쟁책동 야망과 한반도 침략음모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실제 시민들과 만남에 있어서는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근거를 하나들 제시할 때 더욱 논리성을 가지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했으면 하는 내용을 참고로 실습니다. 길고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군국주의 부활과 한반도 재침략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1) 일본의 군사적 팽창과 한·일간의 군사적 결탁 진상최근 일본의 군사적 팽창과 한일간의 군사적 결탁은 전례없이 노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북의 평화적인 인공위성 발사를 탄도 미사일 발사라고 떠들어대며 감행되고 있는 이러한 군사적 책동 앞에서 우리나라 국민은 일본에게 경계 경종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세계 여론도 강력한 비난을 보내고 있습니다.

① 일본의 군사적 팽창은 어디까지 왔는가.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변국입니다. 따라서 일본 헌법 제9조에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목적, 또는 무력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원히 포기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나라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일본이 지금까지 이 헌법 문구를 존중해 왔는가. 아닙니다. 이른바 평화의 너울을 쓰고 미국의 지배 위에 올라 군사 대국으로 치풍음혜 온 것이 일본의 실제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세계 제패를 실현해 보려는 것이 일본의 야망입니다. 오늘 일본이 이북의 인공위성 발사가 마치도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듯이 광고하면서 강력한 군사적 대응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도 저들의 이러한 야망을 합리화하자는 데 그 욕심이 있습니다

일본은 이북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한다는 미명하에 패전한 이래 헌법상 포기하였던 교전권을 되살렸습니다. 최근 일본 국회 참의위에서는 미인방위협력지침 이행을 위한 주변유사시비안들을 일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해외 침략의 강행을 명백히 선포한 것 외 다

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일본의 군사적 팽창과 해외 침략 기도는 이런 한계선을 넘어 서서 눈앞에 엄중한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일본은 군사비 지출을 대폭 증강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이 새로운 침략 무력으로서의 자위대의 경찰 예비대를 창설한 1950년의 군사비 지출은 1,310억엔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로부터 10년 후인 1960년에는 1,569억엔, 1974년에는 1조엔, 1987년에는 3조 5천억엔, 1998년에는 약 5조억엔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일본의 군사비 증강 속도는 세계에서 일위라고 합니다.

일본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된 1999년 회기 연도에 군사 장비 구입비로 8천 965억엔, 전역미사일방위체계 개발을 위한 미일공동기술연구에 9억 6,000만 엔을 할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첩보 위성 개발비만도 1,500억엔에서 2,000억엔을 지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군사비의 증대는 곧 군사력의 증대를 의미합니다.

오늘 일본은 자위대 무력의 최신 현대화와 장거리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엽에 벌써 일본은 1,200대의 탱크, 6,000문의 각종 포, 함선, 1,700여대의 군용기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에는 그것이 보다 최신에 군사 장비들로 갱신되었습니다. F-15와 F-16 등 최신에 전투기들을 주력기로 대비하고 긴 항속 거리를 가진 E-767 조기 경보기들을 배치했는가 하면 최신에 잠수함과 항공모함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대형 수송선과 여러 척의 이기수 첨단 미사일 호위함까지 갖추었습니다. 일본은 가까운 시일 안에 4대의 공중 급유기와 항공 이기수 첨단 미사일 호위함을 도입하고 대형 장거리 수송기를 개발하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히 신형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힘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이 긴 사정거리를 가진 각종 미사일들을 개발한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1980년대부터는 미사일의 국산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때부터 많은 회사들이 미사일의 개발 생산에 참가하여 공중배 해상 미사일, SSM-1, SSM-21, 공중배 공중 미사일, EIM-1, 해상과 해상 미사일, SSM-1B 등을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1970년대 중엽에 벌써 나이커 JR 삼신 로켓, 카타 아커로크 로켓, 유도 미사일 등 핵 운반 수단들로 무장하였습니다. 일본은 우주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7,000-9,000KM의 사정 거리를 가진 장거리 무인 로켓까지 개발하였으며 최근 몇 년에만도 E-7E 로켓의 기본 엔진 시험과 발사 시험을 연이어 자행하였습니다. 영국 신문 본드 타임스는 일본은 10가지 종류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모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핵무장에 필요한 충분한 핵 시설들을 갖추어 놓고 수많은 핵 물질들을 확보하고 있는 일본이 1994년부터 정상 가동하기 시작한 첫 고속 증식 원자로 몬지에서만도 2001년까지 약 10톤의 플루토늄으로 30년 동안에 플루토늄 40톤을 확보하여 4만 8,000개의 원자탄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 이러한 핵탄두들이 핵 운반 수단에 의해 임의의 순간에 발사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감히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은 첩보 위성 개발의 마라도 들어내 놓았습니다.

최근 그들은 내각 회의에서 이북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2002년까지 4개의 첩보 위성을 발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외 침략에 필요한 모든 군사 정탐과 자료들을 장악하고 그

에 맞게 자위대 무력 편성과 군사작전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일본이 첩보 위성 개발을 추구하는 진 의도입니다. 오늘 자위대는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군사 결전을 벌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첩보 위성의 도입은 군사적 팽창과 해외 침략을 위한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해외 침략을 노린 군사 훈련을 더욱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쟁 능력이 없는 군대로 자처하기 위해 형식상 군사력 육해공군 자위대가 하나의 통합 사령부로 일체화되고 지난해 11월에는 첫 대규모 통합상호훈련을 진행하여 재침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지난 시기 한달에 1회 이상으로 벌어지던 미일간의 공동군사훈련이 최근에는 사상 처음으로 자위대 기지들에서 일본 자위대 통합각료회의 의장 등의 직접적 지휘하에 다반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자위대는 미군에 대한 지원의 단계를 완전히 벗어나 공동군사작전에서 주동적인 역할과 공격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쟁열에 환장한 일본이 일차적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한반도입니다.

일본 호전계층 속에서는 일본 주변유사시가 우선 한반도를 염두해 놓은 것이라는 망발이 노골적으로 계속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군사 행동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1일 보도 도쿄신보는 1993년 한반도 핵 위기 때 일본 방위청이 자위대 잠수함을 비롯한 수십 척의 함선과 134대의 전투기를 동원하여 미 제7함대 한국 해군 등과 함께 동해를 무대로 북침을 겨냥한 대규모 전쟁 연습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을 폭로하였습니다. 아사히 신문 4월 15일 보도에는 1994년에 일본이 미국의 북침 전쟁 계획인 5027 작전계획 실행에 적극 가담하여 1,000개의 협력 항목을 조인하고 미,일 고위군관계자들이 모여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한 모의 전쟁 연습까지 2차례나 진행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까다니는 지난해 일본은 미국과 북침을 노린 전쟁 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회합을 3차례나 극비밀리에 진행한 사실을 공개하였습니다.

최근 일본 호전계층 속에서 대일 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처한 선제 공격론 까지 공공연히 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자위대가 우리 나라 동해상에서 괴선박 사건을 일으키고 추격이라는 명목 밑에 전후 처음으로 훈련이 아닌 실전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전변국인 오늘의 유고슬로비아의 공습 참전과 때를 같이해 벌어진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파견, 특히 해외 공군의 참전이 이제 재론할 여지조차 없게 되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전역미사일방위체계 도입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걸고 이 체계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그 화살이 곧 이북을 대상으로 쏠 체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가서는 일본은 미국에 빌붙어 세계를 군사적으로 장악할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는 어떻게 변저지겠는가.

우리 나라 속담에 길러 준 개가 주인이 받뒤축을 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을 군국화해로 사주해 온 미국이 그들의 불 분지에 인이맞게 되리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광범위한 미국인들 속에서 함성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펜실바리아 디킨스대학 조지 프렌드리넬교수와 헤리스버거대학 세르비쓰리바드교수가 일본 경계령을 강조하면서 2차 태평양 전쟁이 다가 온다고 주장한 것은 결코 우연치 않습니다.

② 한일간의 군사적 결탁 강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른바 한일군사협정 안이 체결된 이후 지난 수개월간 추진되어 온 한일간의 군사 관계는 이미 단계를 넘어서 동맹의 엄중한 단계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일간의 군사적 결탁은 최근 이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기화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간과할 수 없는 위협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일간의 방위 수뇌급을 포함한 군 관계자들의 접촉과 기류는 전례없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87년에 정상급 상호 방문에 일본측에서 20회, 한국 측에서 18회에 불과했다면 최근 4개월 기간에 그 회수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지난 7월 이후로 상층의 접촉 교류에 머물렀다면 최근 몇 개월간에는 해군과 공군의 원리가 진행되면서 육, 해, 공군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각 군사 학교들에서의 상호 유학, 최첨단 비행기에 대한 군부 탐승 상호 시험 비행 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북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군사적 결탁도 전례없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한일간의 군사회담들에서는 국민 감정과 일본의 헌법 기준을 감안해 한반도 유사시 직접적인 협력, 한일 군사협정체제 방안이 협상이후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범위를 벗어나 군사 공동체계를 내오고 공동군사작전, 공동훈련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한국 국방부장관이 방일한데 이어 올해 1월에는 일본 방위청 장관이 방한하여 방위사태 대처 핫라인 설치와 공동군사훈련실시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지난 2월 초에 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 자위대간의 간부 회의에서는 한일간의 해상 공동훈련과 간부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으며 오는 8월2일부터 14일간 제주도 동남쪽 해상에서 합동해상군사훈련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2월 초순에 이어 3월 중순에 진행된 한일군사관료들의 회담들에서는 위기 발생시 상호조항을 유용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비상연락망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일간의 거듭되는 군사적 모의에 따라 군사공동작전을 위한 정보, 통신, 경보 체계와 군사 인원 및 불자 수송용 태세를 더욱 보충 완비되고 있습니다. 한일간의 조기 경보 체계는 이미 완비되었으며 지난 5월 초부터 한반도 유사시의 긴급 상황에 대비한 서울 도쿄간 군사긴급연락망이 개설되어 서울, 도쿄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군지휘서의 설치는 각종 지휘 시설과 반항공 감시 시설, 일본의 각지역에는 통신 감신소를 통해 군사적인 움직임과 군사 통신 내용이 한국군에 정기적으로 통보되고 있습니다. 유사시 대처하기 위한 해상 통로도 일본 해상 자위대와 한국 해군의 합동 하에 개설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청의 양국 군사 고문들간의 북한 군사 정보 교환에 대한 핫라인을 설치했으며 5월 말에는 양국 고위 관계자들의 통신 회선을 추가로 개설하였습니다. 지난 2월 초에는 마산에서 일본의 요카대학연구소와 한국의 신아시아군사연구소의 공동개최로 방위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모의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이북에 대한 유엔안보이사회 부결 결의가 떨어지고 이북의 해상 봉쇄를 위한 다국적 함대의 편성이 합의되고 있는 상황은 전쟁 모의 시험은 전쟁 전야에만 볼 수 있는 위협 천만 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한일간의 군사적 결탁은 합동군사훈련이 매일과 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도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원래 일본은 전후 자국 방위의 구실 밑에 미국과의 공동훈련을 강화해 왔으나 한국군의 공동훈련은 내외 여론이 두려워 아직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부산 앞바다에서는 관행을 깨트리고 일본 해상 자위대와 한국 해군의 해상 합동군사훈련이 감행되었습니다. 한일간의 해상 합동군사훈련의 실시로 일본은 한반도 지역과 해상에 대한 자연 지리적 조건을 파악하는 것과 함께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 근해에 대한 감시 경계 작전과 해상 수송, 한국군과의 군사공동작전 등을 필요에 따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일간의 군사적 결탁이 한일군사동맹 형태의 마지막 단계에서 추진되고 있고 새로운 아시아판 나토인 미일한 삼각군사동맹이 마무리 되어 자기의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한일군사동맹과 삼각군사동맹은 가설이 아니라 정설로, 아니 눈 앞의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③한일간의 군사적 결탁을 통해 일본이 추구하는 진위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나라에 대한 재침에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해서든지 우리 나라가 통일되기 전에 타고 앉아 대동아 공영권의 옛 꿈을 실현하기 위한 아시아 침략의 발판으로 이용하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이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이북 위험론에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앞으로 이북 위험론의 방패를 들고 한일간의 합동군사훈련을 정례화하며 점차 작전 지역을 한반도로 옮기고 군사 작전 활동을 계단식으로 확대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은 최근에 한국 당국자들을 구슬려 우리 나라의 신성한 영토인 독도에 대한 저들의 이용과 관리를 법적으로 담보하는 침략적 어업협정을 조작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일본이 어업협정의 공동 관리의 합법성을 운운하며 일본의 보호 구실의 밑에 독도 지역을 저들의 안보권으로 선포하고 군사 활동을 이 곳으로 확대하려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합니다.

그런데 김대중정권은 이에 편승해 일본과의 군사적 결탁을 더욱 강화하는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일 관계의 새 역사를 군사 관계를 결탁하며 일본에 아부 굴종하면서 우리의 신성한 영토까지 내다 바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김대중정권이 추구하는 저의는 북침 공격을 실현하는 데서 일본의 군사적 힘을 빌리자는 것입니다. 도대체 한 핏줄을 나눈 동족을 멸살하기 위해 외세와의 군사적 관계의 결탁을 더욱 노골적으로 일삼고 있는 메국정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김대중정권과 같이 을사 5적을 능가하는 메국노들 때문에 우리 민족은 50여 년간이나 남과 북으로 갈라진 채 동족 대결의 비극적 수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당인한 숙적입니다.

아직도 우리 나라의 하늘에는 지난날 일본 군대로 능욕 당하고 무참히 살해 당한 20만의 여성들 즉 일본군 강제 중군 위안부와 징용, 징병으로 끌려가 침략 전쟁의 재물로 된 6백여 만의 청상년월, 일제에 의해 학살당한 1백여 만의 부고한 사람들의 넋이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 앞에 지은 그 엄청난 죄에 대해 솔직한 반성도 사죄도 보상도 하지 않고 있는 일본 오랑캐들이 군사적 팽창과 한일간의 군사적 결탁을 이르고 현해탄을 건너 또다시 이 땅으로 몰려 들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군 강제 중군 위안부 할머니는 아직도 서슬퍼런 칼날을 세우고 일본 살인모리배

들에게 그 죄가를 사죄 배상 받으려 매일같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국민의 매일같이 커지고 있는 일본 경제론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 일본의 군사적 팽창과 한일간의 군사적 결탁 책동을 단호히 분쇄해야 할것입니다.

2) 일본의 군사 대국화 어디까지 왔나

오늘 일본의 군사 대국화가 위협 수위를 넘어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지배층은 말로는 평화와 완화에 대해 곧잘 떠들고 있지만 사실은 그와 정반대로 해외 침략을 위한 군사 대국화의 길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원래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으로서 육 해 공군 및 기타 병력을 가지지 않겠다고 저들의 헌법에까지 명시해 두었지만 그들은 자위대라는 명칭을 내건 완전 무결한 상비군을 버젓이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대동아 공영권의 옛 꿈을 실현하려는 야심 밑에 미국의 턱 밑에 붙어 재무장의 길을 걸어 왔습니다. 오늘날 일본은 미국 다음가는 군사 대국으로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은 지난 회기 연도에도 군비를 사상 최대의 규모로 1992년 수준을 훨씬 능가해서 무려 5조엔을 지출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군비 지출에서 미국 다음가는 제2위이고 나토에 비해서는 군비가 무려 4배나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의 자위대 무력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군대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현존 군사 산업체만 제대로 돌려도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 살인 무기를 지금보다 4-5배 늘릴 수 있고 연간 탱크는 500대, 군용 항공기는 1,500대, 전투 함정은 3,000톤급 600척이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밝힌 것처럼 일본은 자위대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군 장비의 질적으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해상 자위대와 항공 자위대의 현대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의 해상 자위대 무력은 아시아에서 최강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해상 자위대는 154척의 함선과 330여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고 60여 척의 구축함과 15척의 잠수함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항공 자위대도 새로운 첨단 기술의 도입된 전투기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은 벌써 1990년도에 미국 본토에 대비한 것보다 더 많은 180여대의 F-15 전투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와스 조기 공중경보기와 E-2C 조기 경보기, T-30 전투기를 비롯한 각종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이른바 국력에 상응하는 군사력 배양이라는 명분하에 군사 대국화를 적극 추진시켰습니다. 특히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서 깊은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건 해 무장화 책동입니다. 일본은 지금 플루토늄만으로도 나가사키의 원자탄 3,000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이것으로서도 부족해 앞으로 30년 동안에 40톤의 플루토늄을 더 끌어 들이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핵 장약만 넣으면 되는 수많은 핵탄두들을 생산했으며 그 운반 수단까지 개발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임의의 시간에 핵 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은 해 무장화만이 아니라 해외 침략을 위한 군사 전략을 작성해 놓고 그에 근거해서 해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의 전쟁 연습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해외 침략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첩보 훈련으로부터 대규모의 병력과 첨단 전쟁 장비들이 동원되는 합동 훈련에 이르기까지 각종 전쟁 연습을 본격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자위대 무력에 의한 단독 훈련은 물론 주일미군과의 대규모 합동군사훈련도 끊임없이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만도 일본은 주일미군과 책동해서 립팩을 비롯한 연 10회에 달하는 합동군사훈련을 벌였습니다. 본격화되고 있는 이 같은 미일합동군사훈련이 해외 팽창을 노린 일본 자위대의 전력 보강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것입니다.

일본 당국자들은 지난해 8월말 이북이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을 탄두 미사일 발사라고 우기면서 그에 대처하기 위해 전역미사일방위체계와 정찰 인공위성을 도입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일본 지배층은 올해부터 미국과 함께 전역미사일방위체계 공동 개발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결정을 정식 제기했고 지난해 말에는 2002년 안으로 4개의 정찰 위성을 대비할 계획을 브리핑했습니다.

이렇게 해외 침략 야망에 들떠 있는 일본 지배층은 임의의 순간에 해외 침략을 할 수 있도록 군사를 대국화해 놓고 여기에 모든 것을 복중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재침에 필요한 법제정과 필요한 전력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1994년 11월 자위대 법을 수정해서 유엔 평화유지 활동을 정식 자위대의 임무의 하나로 상정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절대적이지 뭐니 하면서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참가해 재정적 물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과거 죄행을 덮어 버리고 인정을 받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자리를 따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면 현행 헌법을 헌신짝처럼 쥐버리고 그 다음엔 유엔의 모자를 쓰고 지난 시기에 이루지 못한 대동아 공영권의 옛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해외 침략에 나설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합니다. 그래서 세계 여론은 일본이 상임이사국으로 되는 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고 일본의 침략 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에 알 수 있듯이 일본 지배층이 내외의 강력한 반대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군사 대국화의 길로 나아가는 일본의 해외 팽창 야망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그건 오늘에 와서 더욱 노골화 표면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일본 유사시 운운 그 저의

최근 일본 지배층은 있지도 않는 이북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한다는 구실 밑에 해외 침략을 위한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8월 말에 있는 이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탄두 미사일 발사라고 억지로 걸고들면서 이것이 저들의 안전에 큰 위협을 주는 것처럼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지배층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북을 첫 번째 목표라는 저들의 해외 침략 야망을 합법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래 일본 지배층은 저들의 헌법을 무시하고 오래 전부터 해외 침략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자위대의 육, 해, 공군 부력에 공격 작전 능력이 비상히 높아지고 임의의 시각에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까지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갖추어 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위대의 작전 지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확장되었고 자위대 지휘 체계의 일원화 등으로 군사적 해외 팽창을 위한 침략 기구가 완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당국자들은 이북에 의해 일본의 안전에 그 어떤 위협이 조성되고 있는 듯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 당국이 있지도 않는 이북의 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해외 침략 준비를 완성해 지난 날 이루지 못한 대동아 공영권의 옛 꿈의 실현해 보려는 데 그 속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본은 미국 다우 가는 군사 대국으로 부상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란 너울뿐인 평화 헌법을 개정해서 직접 책동을 합법화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행하자면 구실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북의 인공

위성 발사를 탄도 미사일 발사로 몰아 부쳐 일본이 이북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처럼 세계 여론을 환기시켜 제2차 세계대전 폐망으로 박탈당했던 교전권과 범들을 부활시키자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일본 반동들은 지난 4월 27일과 5월 24일 일본 국회의 중의원과 참의원 에서 내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미방위협력 관련 법안들을 끝끝내 통과시켰습니 다.

이것으로서 일명 주변유사시 법안으로 불리우는 주변사태법안, 일본 자위대법 개정안, 그리 고 미일 톨품무력유통협정 개정안이 정식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일본 당국자들은 이 법들 이 그 무슨 일본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는니,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는니, 또 변화되는 국제적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니 뭐니 하면서 그의 호전적이 고 침략적인 성격을 가리워 보려고 별의별 꾀변을 다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을 가 진 사람들과 아시아 국민들은 일본 당국의 관련 법 채택을 아시아에 대한 일본 재침의 과 국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쿄 신문은 관련 법들이 일본을 특별한 나라로부터 보통의 나라로 만드는 데 있다 고 한 마디로 요약했습니다. 말하자면은 평화 헌법으로 교전권은 물론 군사력도 못 가지게 되어 있던 특별한 나라인 일본이 관련 법 제정으로 남들과 같이 교전권과 무력을 가지고 집 단적 자위권도 행사할 수 있는 보통의 나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일본 당국은 관 련 법들을 제정함으로써 박탈 당했던 교전권, 참전권을 되찾게 되었고 저들의 재침 야망을 실현하는 데서 장애로 되던 모든 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해 버렸던 것입니다.

자위대법 개정안의 범화를 통해 자위대의 육, 해, 공군의 모든 전력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의 무기 사용권이 허용되었습니다.

주변사태법을 통해서 는 유사시 일본의 모든 인적, 물적 지위를 총동원시킬 수 있는 전시 체 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일 물품무력유통협정 개정안의 범화를 통해서 는 미국 침략 전쟁 수행의 일본 자위대가 미군과 함께 참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미일방위협력지침 관련 법들이 채택됨으로써 일본은 지난 시기 일본 제국 주의자들이 꿈꾸던 대동아 공영권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길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습 니다.

이번에 일본 지배층이 유사시를 운운하면서 미일방위협력지침 관련 법을 채택한 것은 아시 아 재침의 모든 준비가 완전 무결하게 끝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변은 한반도이며 일미방위협력지침에 따르는 일본 반동들의 첫 번째 군사적 타격 대상도 다름 아 닌 이북입니다.

제반 사실은 일본 지배층의 재침 야망이 이제는 그 준비에서 행동 단계에 넘어 갔다는 결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일본 문화를 개방하고 한자병용 정책을 세우고 있는 등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는 행위를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땅은 김대중정권의 매국적인 일본 문화 개방으로 해서 양풍에 왜색 왜풍이 판을 치 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일본 영화와 일본 민화, 일본 출판물들이 범람하고 있고 이것으로 해서 어린이들까지도 일본 문화에 흠이 져서 어릴 때부터 왜풍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땅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마구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 남용과 김대중일당의 한 자 병용 책동으로 해서 우리의 밭과 글까지도 사멸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국에 온 일본인들이 한국이 아니라 일본의 지방 도시에 온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대중일당이 이번에 또 스크린 쿼터 축소를 통해 미국 영화 상영 일 수를 대폭 늘리려고 책동하고 있는 것은 한국 영화를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땅을 완전한 양풍, 왜풍이 난무하는 민족 문화의 폐허 지대로 만들어 민족의 얼을 완전히 없애 버리려는 극악한 매국배족적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국의 저질 영화들이 이 땅에 대거 침투해 사람들의 건전한 사고 의식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물론 온 겨레가 김대중일당의 이 같은 반민족적인 문화 개방 책동에 항의해 경악과 분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 이어 영화인들과 각계 시민 사회단체들이 김대중일당의 스크린 쿼터 축소 책동을 반대해 연일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바로 온 겨레와 민의를 반영한 것입니다.

①한자와 외국어 병용을 부활시켜 민족성을 팔아먹고 있는 김대중 정권입니다.

언어는 민족을 특징 짓는 기본 정표의 하나입니다.

하기에 우리 민족은 우리의 이름과 말까지 난도질한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 통치하에서도 우리의 말과 글을 지켜냈습니다. 8·15 후에는 양풍 왜색에 더럽혀진 한글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우리 국민의 가열찬 투쟁에 의해 지난 71년에 한자 병용 폐지와 한글 전용이 공식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로 자처하는 김대중정권은 이미 폐지되었던 한자와 외국어의 병용을 다시금 부활시켜 정책화하고 그것을 공식 시행하기로 함으로써 저들이야말로 선형 매국노들을 무색케하는 반민족 반민중 정권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내 놓았습니다.

지금 김대중일당은 국제화 시대에 한글 전용이 표현상 어려움이 많다는 궤변을 내들리며 외래어 병용을 합리화해 보려고 획책하고 있으나 저들의 사대 굴종적인 민족 반역의 범죄적 실체는 결코 가리울 수 없습니다. 이미 야당 시절부터 한자 병용을 주장해 온 김대중은 지난 해 10월 외자 구걸차로 일본을 행각했을 때 일본 상전이 한자 병용을 강요하자 이에 굴복해 제2의 금융 위기 발생시 몇 푼의 달러를 구해오는 대가로 일본 대중 문화의 개방과 한자 병용을 담보해주는 상식이하의 반민족적인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일본군 강제 중군 위안부(정신대)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민의에 등을 돌린 김대중 정권은 반민족 반역의 길에서 민중에 의해 심판 받을 것입니다.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1)일본은 현행법의 '노예제'를 '위안부'사건에 적용한다!!(정의).

일본군 강제 중군 위안부를 정의하는 입장에서부터 일본과 우리는 각각 다른 입장과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정부는 1926년의 노예제도 제 1조(1)에 따라 <소유권에 귀속되는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사당하고 있는 사람의 지위 또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노예제'라는 용어를 현행 국제법의 조항하에 '위안부'사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안부의 관행은 관련 국제인권기관, 제도에 따라 채용된 바에 의하면 성노예제 및 노예관행의 명백한 사례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또한 <현대노예세부회>의 위원 및 NGO대표와 학자들에 의해 표명되었는데 여성패해자는 전시의 강제매춘 및 성적 노예와 학대의 기간 중 연속속되는 강간과 심한 신체적 학대를 참지 않으면 안되었기에 '위안부'라는 말이 이러한 피해를 조금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군사적 성노예'라는 말

로 대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에서는 이러한 견해와 더불어 더욱 구체적으로 일본군 강제종군 위안부라고 명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정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역사적 배경

일본군을 위해 전쟁터에서 매춘부를 제공하는 <위안소>의 개설은 상해에서의 중일분쟁에 따라 1932년에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위<위안부>가 보편화되기 거의 10년전의 일입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일본군이 지배한 동아시아 전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위안소 제도를 공식적으로 설치한 이유는 그렇게 제도화되고 관리된 서비스는 육군의 점령지에서 보고되는 강간의 건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1937년 일본의 군대가 6년의 전쟁동안 군사적 피해를 봤을 때 군의 규율과 사기의 고조를 생각하면서 군의 성적 서비스를 위해 될 수 있는 한 많은 여성을 손에 넣기 위해 발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32년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되었지만 전쟁말기 수년간은 완전히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강요함에 따라 남자도, 여자도 전쟁에 공헌할 것을 요구하면서 수많은 식민지 여성들을 성노리개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표면상으로는 공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되면서 <여자 정신대> 라고 이름붙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히 여성들을 손에 넣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였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은 속아서 군사적 성노예로 만들어졌고 그들은 곧 정신대와 매춘의 결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증대하는 군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폭력과 노골적인 강제로 보다 많은 여성을 손에 넣을 있었는데 여성본인에게 가해진 폭력과 더불어 가족에 가해진 폭력또한 무자비했습니다. 가족은 딸의 연행이나 때로는 폭력에 의해 잡혀가기 전에 부모앞에서 행해지는 강간을 저지하려고 했고 그에 의해 사살되거나 구타당했습니다.

위안소는 중국, 대만, 블레오, 필리핀, 태평양제도의 많은 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및 인도네시아 등에 존재했다는 것을 많은 자료와 증언을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여러 장소에 있었던 다양한 <위안소 규칙류의 기록>에서는 일본의 군부가 매춘시스템의 세부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순한 하나의 유흥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일본군이 어느 정도까지 위안소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그 조직이 모든 측면에 깊이 관여되어 있었는가를 의심할 여지없이 명백하고 있습니다. 즉 위안소가 어떻게 합법화되고 제도화되었는가를 명백히 시사하고 있으며 이 제도속에서 여성들은 말이나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은 상황속에서도 매춘하도록 강요당했던 것입니다.

전쟁의 종결도 <위안부>로서 사역당하고 있던 여성의 대부분에게는 구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퇴각중의 일본군에게 살해당했거나, 더 많은 여성들이 운명에 맡겨진 채 유기 당했기 때문입니다. 증언에 의하면 하루밤에 70명의 위안부가 일본군에게 살해당했는데 이는 여자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하며 위안부의 존재가 진격해오는 미군 손에 넘어가면 곤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전선에 있었던 피해여성의 대부분이 군인과 함께 군의 특공작전에 가담할 것을 강요당했

습니다. 그러나 제일 많았던 것은 거의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적국>에게 어떤일을 당할지 모르는 위험한 장소에서 자활하도록 방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3) 사례 증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처음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에 의해 전세계에 까발려 지기 시작했는데 가장 국욕적이고 고통의 나날을 다시 소생시키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치욕을 반드시 청산하여야 만이 되물림하지 않는다는 민족적 의지와 평생을 빼앗겼던 자신의 명예와 인생을 되찾기 위해 다투진 결심과 결의로 한분 두분 증언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그중 일부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재 74세의 <정옥순>할머니의 증언은 일본제국육군의 병사에 의한 성적 폭행이 나날이 강간에 보태져서 이들 여성이 견디어내야 했던 잔혹하고 가혹한 취급을 특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는 1920년 12월 28일 조선반도 북부 함경남도 풍산군 파발리에서 태어 났습니다. 13세 때의 6월 어느날, 나는 밭에서 일하고 있는 부모들의 점심준비를 할려고 마을샘에 물을 길러 갔습니다. 거기에 일본인 수비병 한사람이 갑자기 나를 덮쳐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기 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트럭으로 경찰에 끌려가서 강간당했습니다. 내가 고함치니까 그들은 입에 양말을 쑤서 넣고 강간을 계속 했습니다. 내가 운다고 경찰서장이 내 왼쪽 눈을 찔었습니다. 그날 나는 왼쪽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10일 쯤 지나서 나는 <해산>의 일본육군 수비대의 막사에 끌려갔습니다.

거기에는 나와 같이 약 400여명의 조선의 젊은 처녀들이 있어 매일 성노예로서 5,000명 이상의 일본군을 상대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하루 40명씩이었습니다. 그럴때마다 나는 항의했습니다만 그들은 나를 때리고 뒤에 누더기를 쑤서 넣고 강간을 계속했습니다.

어떤 자는 내가 저항을 멈출때까지 국부를 성냥개비로 쑤었습니다. 나의 그곳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같이 있던 조선소녀가 왜 하루에 40명이나 상대를 해야 되는가고 물었습니다. 질문을 한데 대해 빌주기 위해 일본군 중대장 야마모토는 이 소녀를 칼로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그들은 소녀의 옷을 벗기고 손발을 묶어 못이 나온 판자위로 못에 피와 살이 덜릴 때까지 국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그녀의 목을 잘랐습니다.

또다른 일본인 야마모토는 "너희들을 모두 죽이는 것은 간단하다, 개를 죽이는 것 보다 간단하다."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것들 조선인 가시네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울었으니까 이 사람고기를 삶아 먹여라" 라고도 말했습니다.

어느 조선인 서너는 너무 자주 강간당해서 성병에 걸려 그 때문에 5여명 이상의 일본군이 병에 걸렸습니다. 성병의 만연을 막고 그 소녀의 균을 없앤다고 불에 달군 철봉을 그녀의 국부에 꽂았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 중 40명을 트럭에 태워 멀리 있는 웅덩이에 데리고 갔습니다.

웅덩이에는 불과 뱀이 가득했습니다. 병사들은 빛사람을 불속에 처 넣고는 웅덩이를 흙으로 덮어 그녀들을 생매장했습니다.

수비대의 명령에 있던 소녀들의 반이상을 그들은 죽였습니다. 두·번 도망을 기도했으나, 언

제나 잡히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더욱 심하게 고문을 당하고 나는 너무 많이 머리를 맞아서 지금도 멍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또 나의 입술속과 가슴, 배, 몸에 문신을 했습니다.

나는 기절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서인지 산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나와 같이 있던 소녀 중 [구해]는 살아 남았습니다. 산속에 살던 50세 남자가 우리를 발견해서 의복과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나는 일본인의 성노예로 5년간 사역당한 뒤 18세때 상처입고 아이를 못낳는 몸으로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상태로 귀국 했습니다.

2. 77세의 [황서경]의 증언은 많은 처녀들을 군사적 성노예로 유인한 속임수 징집방법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나는 [1918년 11월 28일 낮, 품팔이 노동자의 처녀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평양의 강동구의 타애리 노동자 동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17세 때 1936년의 일인데 부락의 장이 내게 와서 공장의 일을 알선해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집은 대단히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기쁘게 수입 많은 그 일을 승낙했습니다.

나는 일본인의 트럭으로 벌써 20명 정도 조선의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는 역으로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기차와 그 다음에는 트럭에 태워져 몇일간의 여행 끝에 중국의 목단강 기슭의 어느 큰집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그 곳을 공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잠시후 공장따위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녀들은 문에 번호가 쓰인 방을 한 사람에 방 하나씩을 할당받았습니다.

무엇이 신상에 덮치는 것도 모르고 지낸지 2일이 되던 날 군복을 입고 칼을 찬 일본군인 한 사람이 내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내 말을 들을 것인가, 어쩔 것인가."라고 묻더니, 내 머리채를 들고 마루바닥에 쓰러 뜨리고 다리를 벌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나를 강간했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나갈때 나는 밖에 20명 내지 30명의 나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누언이 그날 나를 강간했습니다. 그 이후 나는 매일 밤 15명에서 20명의 남자에게 강간당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지 않으면 안됐습니다. 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면 죽여서 어디엔가에 묻어 버렸습니다.

어느날 새로운 처녀가 내 옆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남자들에게 저항하다가 그 중 한 사람의 팔을 물었습니다. 그후 그녀는 마당에 끌려나가 우리 전부가 보고 있는 앞에서 칼로 목이 베어져서 죽고 그 몸을 난도질당했습니다.

3. 생존자 [황금주]씨는 내게 이야기한 바로는 중국의 길림성의 위안소의 첫날 일본군으로부터 여기서는 지켜야 될 다섯가지 명령이 있어서, 지키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천왕의 명령, 둘째, 일본정부의 명령, 셋째 그녀들이 소속해 있는 육군중대의 명령, 넷째, 중대안의 분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소속되어 있는 텐트 소유주의 명령이라 했다. 또 다른 생존자 [김복순]은 성노예 제자로서의 자기생활은 군으로부터 직접 통제되어 있었다고 증언했다.

매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의 하사관 상대, 오후 9시 이후는 상교의 시간이었다. 또 대부분의 군위는 그 사용을 거부했지만 모든 군위들은 성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콘돔을

지금받았다.

조흥훙 박사의 말에 의하면 이들 여성은 다년간 매일매일 몇번의 강간을 참아야 했기 때문에 그 인생의 대부분을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쇠약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조박사는 또 여성들이 몸에 입은 눈에 보이는 육체의 상처와 정신적 고통이 그 생애를 통해서 그녀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정신적 고통이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박사는 또 여성들의 거위가 불면, 악몽, 고혈압 및 신경과민에 고통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성들의 거위가 전염되어진 성병 때문에 생식기나 비뇨기가 영향을 받아서 불임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4)이북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일본에 사죄 배상의 요구를 하고 있다.

■북한이 일본정부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일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국제법하에서의 책임을 인정할 것.

■이 법적 책임에 기초해서 [그 수치스러운 과거를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청산]하기 위해 그런 고든 행위에 대해서 사죄하고 개개의 생존여성피해자에 대해 보상을 지불하고

■그 위에 [위안부]제도설치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을 특정해서 국내법하에 추가고소 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인정해야 하는 책임의 법적 근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평양의 사회과학학회 법학연구원소장 [정남영]박사의 말을 빌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법적 책임에 관한 북한의 법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일 먼저

▶20만명의 조선여성을 군사적 성노예로서 강제징집한 것,

▶지독한 성적 폭행을 한 것 및 ▶전쟁후 대부분을 살해한 것은 ●인도에 대한 죄에 해당한다고 논했습니다.

더욱이나

▶일본에 의한 조선반도의 병합은 합법적 수단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지 않고 또

▶조선반도에 있어서의 일본인의 존재는 군사점령의 상태였다고 생각되어,●[위안부]로서의 조선여성의 강제징집은 피점령지의 문민에 대한 것으로 이 모든 범죄는 국제인도법상의 범죄로 취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위안부]제도의 설치 특히 강제징집과 매춘의 강제는 일본이 1925년에 비준한 1921년의 [부인 및 아동의 매춘금지조약]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셋째는

●군사적 성노예제도는 당시의 관습국제법의 선언이라 생각되는 1926년의 노예조약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에

●군사적 성노예의 행위는 1948년의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 (쥬노사이드조

약)-1948년 이전에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관습국제법규범이었지만-이 법에 따라 집단 살해(쥬노사이드)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정남영]박사의 견해에 따르면 일본이 저지른 행위는 집단의 구성원의 육체 또는 정신을 위협해서 해롭게 하고 그 육체적 파괴를 가져 오게끔 의도적으로 고통스러운 생활조건을 고의로 부과하거나 또 집단속에 출생을 방해하는 의도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특정한 국민적,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파괴하는 의도를 가지고 행해진 행위는 [쥬노사이드조약] 제2조의 집단살해에 해당됩니다.

또한 북한은 ●일본과 북한간에는 일본과 한국사이와 같은 외교관계가 확립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위안부]문제에 보태서 강제노동문제도 같은 또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어 양 정부간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나, 북한정부는 일본정부가 논하듯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또는 전쟁종결때의 기타 국제조약에 따라 해결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한국 정부와 상반된 견해라는 것은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북한정부는 일본정부가 아직 공문서로서 소지하고 있는 남아있는 모든 문서 및 자료의 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 문서에 기초해서 일본은 [위안부]제도설치의 역사적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고 이에 병행해서 일본의 역사책과 역사교육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상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은 생존여성피해자에 대한 개인보상지불과 더불어 일본침략의 결과로 살해당한 모든 사람을 위한 보상의 지불이 북한정부로부터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또 몇 명의 관리는 보상의지불보다 생존피해자 개인 및 북한정부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가 상징적으로 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실제 이남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단체는 두가지를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정부 및 학자와 보도관계자와 피해자는 [아시아평화기금]에 강경히 반대하고 거절의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기금은 [국가보상을 회피하기 위한 계략 또는 위장계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남에서는 이 국민기금을 두고 정부는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취하다가 민간단체와 더불어 피해자 할머니께서 몇 년간에 걸쳐서 투쟁을 하니까 그제서야 한국 정부가 빌어주는 형식으로 기금을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일본정부는 그 기금의 설치로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의 법적 책임을 면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으며 그 기금의 설치 및 생존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지불을 위해 민간에서 모금한다는 일본정부의 행위는 [피해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기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북한과는 명확히 다릅니다.

한국정부는 두나라 사이의 국교를 [정상화]하는 1965년 한일조약에 기초하여 일본정부로

부터 전시중에 입은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 보상이 지불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해두자면 그 시절에서는 군사적 성노예문제는 취급되지 않았었습니다.

1993년 3월 그 문제에 관한 최초의 공적 논문후에 [김영삼]대통령은 "한국은 일본정부에게 [위안부]문제에 관한 어떠한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을 위한 아시아기금]을 비롯한 민간단체와 우리 전여대협은 그 기금은 민간에서 기부금을 거두는 것으로 일본정부가 그 국가책임을 면하기 위해 취한 방법으로 보고 있고 무조건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욱이 국제적 역할을 해야하는 UN에 국제사법재판소 또는 상설중재 재판소를 통해서 요구하기를 국제적 압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으나 일본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수의 할머니들에게 그 민간기금이 지불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1995년 3월 한국노총연맹은 성노예로서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었으니 강제노동을 이유로 해서 [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호소를 국제 노동기구(ILO)에 통보하기 까지 하였습니다.

6)우리의 요구는

■남북해의 3자 연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완전해결하고 민족대단결 실현하여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에서 주역이 되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지없이 일본에 아부 굴종하는 김대중정권 퇴진시키고 민주정부 수립하자.

■미일 신가이드라인 반대, 한일 군사훈련 중지, 한반도 전쟁채동 음모 분쇄시키자.

■일본군 강제 종군 위안부 문제 남과 북, 해외 3자 공동 연대 투쟁의 실현으로 민족대단결 의식고취하고 조국통일 완수하자.

■전민족의 통큰 단결로 한반도 전쟁채동 자행하는 미국과 일본을 몰아내고 기어이 90년대 연방조국 건설하자.